



ZINUS

Live in Wonder



## DISCLAIMER

본 자료에 포함된 2019년 연간 및 4분기 지누스(이하 “회사”)의 연결기준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연간 및 4분기 회사의 연결기준 경영실적은 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적발표 시점 현재의 당사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향후 전망은 여러가지 변수 등에 따라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Whatever your sleep style we've  
got a mattress for you



# 2019년 연간 / 4분기 경영실적 (K-IFRS 기준)

(단위: 백만원)

| 연결손익계산서       | 연간 누적 실적       |                |               | 전년 동기대비 분기 실적  |                |               |
|---------------|----------------|----------------|---------------|----------------|----------------|---------------|
|               | FY 2019        | FY 2018        | 증감율           | 2019.4Q        | 2018.4Q        | 증감율           |
| <b>매출액</b>    | <b>817,138</b> | <b>621,764</b> | <b>31.4%</b>  | <b>249,944</b> | <b>167,468</b> | <b>49.2%</b>  |
| 매출원가          | 556,943        | 445,400        |               | 175,462        | 123,093        |               |
| 매출총이익         | 260,195        | 176,364        |               | 74,482         | 44,375         |               |
| 판매비와관리비       | 156,326        | 123,278        |               | 44,898         | 35,440         |               |
| <b>영업이익</b>   | <b>103,868</b> | <b>53,087</b>  | <b>95.7%</b>  | <b>29,584</b>  | <b>8,935</b>   | <b>231.1%</b> |
| 기타수익비용        | (197)          | 5,122          |               | (1,233)        | (291)          |               |
| 금융수익비용        | (11,211)       | (13)           |               | (6,571)        | (2,146)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2,461         | 58,196         |               | 21,781         | 6,498          |               |
| 법인세비용         | 20,034         | 14,587         |               | 6,638          | 1,495          |               |
| <b>당기순이익</b>  | <b>72,426</b>  | <b>43,609</b>  | <b>66.1%</b>  | <b>15,143</b>  | <b>5,004</b>   | <b>202.6%</b> |
| <b>EBITDA</b> | <b>123,048</b> | <b>59,691</b>  | <b>106.1%</b> | <b>34,193</b>  | <b>10,972</b>  | <b>211.7%</b> |
| <b>매출총이익률</b> | <b>31.8%</b>   | <b>28.4%</b>   | <b>3.4%P</b>  | <b>29.8%</b>   | <b>26.5%</b>   | <b>3.3%P</b>  |
| <b>영업이익률</b>  | <b>12.7%</b>   | <b>8.5%</b>    | <b>4.2%P</b>  | <b>11.8%</b>   | <b>5.3%</b>    | <b>6.5%P</b>  |
| <b>당기순이익률</b> | <b>8.9%</b>    | <b>7.0%</b>    | <b>1.9%P</b>  | <b>6.1%</b>    | <b>3.0%</b>    | <b>3.1%P</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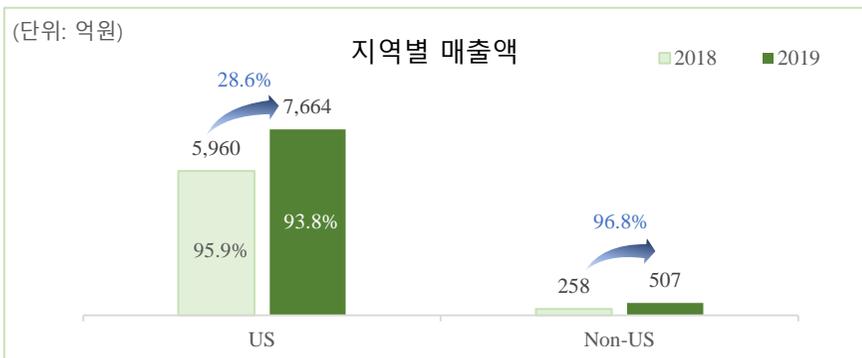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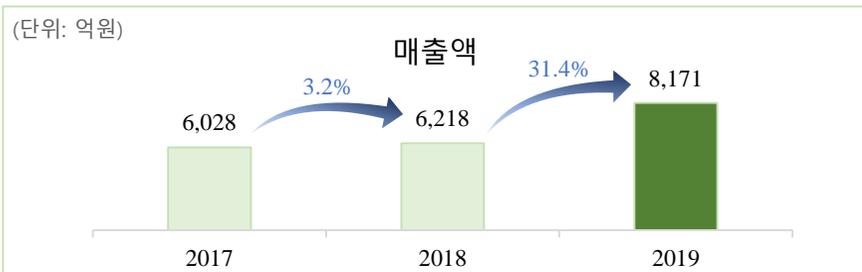
# 2019년 4분기 경영실적 주요사항

## ❁ 분기 경영실적 주요사항

- 연간경영실적은 다음 페이지부터 분석 되어 있으며, 4분기의 경영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분기 경영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모든 지표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5억원(49.2%) 증가하였고, 매출총이익은 301억원(67.8%) 증가하였습니다.
  - ✓ **매출액** : 전년 동기 대비 모든 품목(Category)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와 주요 지역 별로도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 **매출총이익** :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와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비중 감소 등이 반영되어 매출총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p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9월부터 가동된 인도네시아 법인 제2공장의 초기 조업도가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고객의 주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매출의 기회 손실이 있었으며, 매출총이익률도 회사의 예상수준에 소폭 미달하였습니다. 중국산 가구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된 것도 매출총이익률의 추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관세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중국 법인의 원가절감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6억원(231.1%)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01억원(202.6%) 증가하였습니다.
  -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 증가에 따른 관련 변동비 증가와 사업조직 강화를 위한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95억원(26.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전기 4분기 21.2%에서 당기 4분기 18.0%로 감소하였습니다.
  - ✓ **기타수익비용** : 전기 4분기에 반영된 기부금은 3.4억원이었으나, 당기 4분기에 반영된 기부금은 7.2억원으로 기부금이 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채권 2억원을 당기 4분기에 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 ✓ **금융수익비용** :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외환손실이 전기 4분기 2.9억원에서 당기 4분기 3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외환손실의 원인이었던 미국 달러화의 약세는 경영실적 발표 시점인 현재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 **법인세비용** : 미환류법인세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유효 법인세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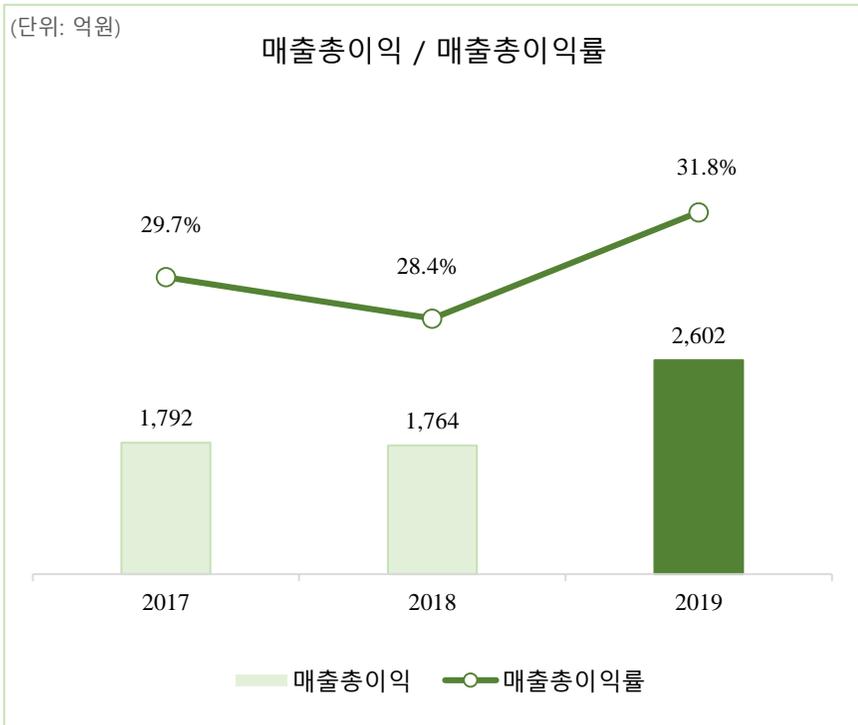


## 실적분석

- 회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가구산업의 온라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회사의 품목 다양화 및 지역별/고객별 확장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공장의 조업도가 예상했던 목표까지 다다르지 못함에 따라 고객의 모든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회손실이 있었습니다.
- 전 품목의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매트리스 대비 가구류 매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영역 확장 전략에 힘입어 Other Furniture의 매출이 63.6% 성장하면서,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매출액은 US와 Non-US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Non-US 국가에서의 매출이 96.8%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Non-US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 4.1%에서 당기 6.2%로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은 한국, 일본, 호주, EU 등의 국가로 진출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 매출총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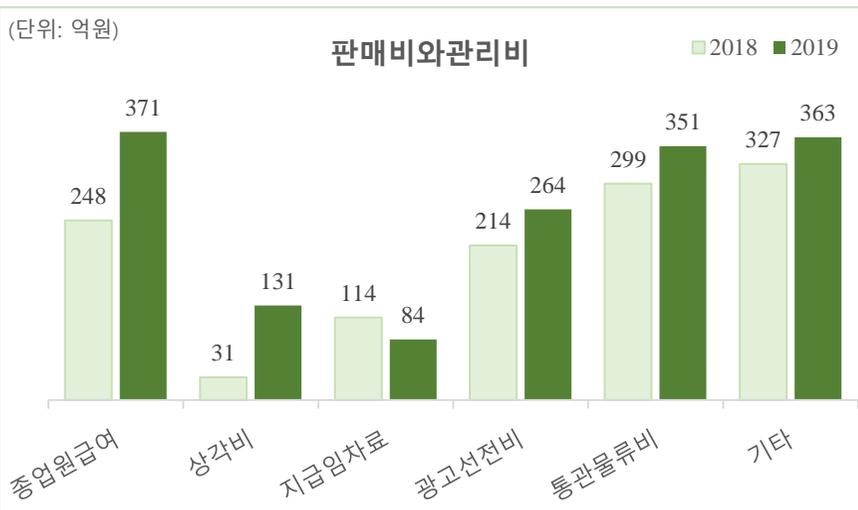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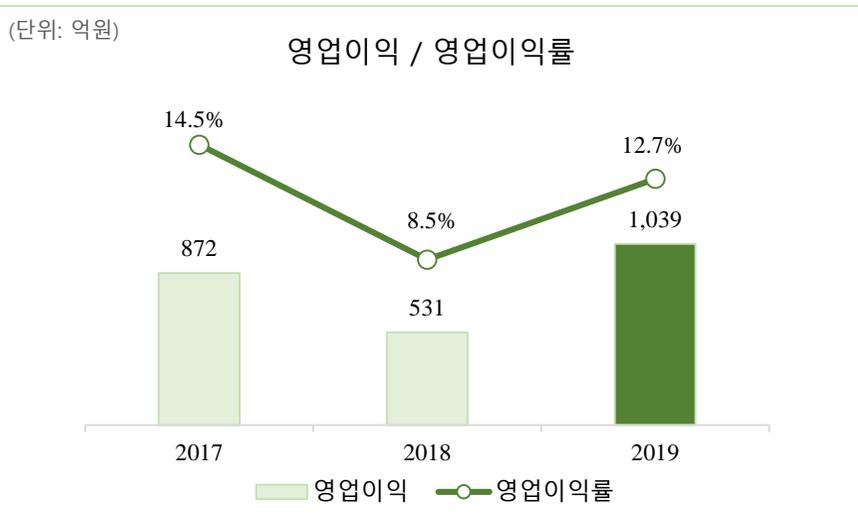


## 실적분석

- 2019년 매출총이익은 2,602억원으로 전기 대비 838억원 증가하며 47.5%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률 역시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31.8%를 기록하였습니다. TDI, MDI 등 매트리스의 주요 원자재인 화학 제품의 가격 안정세가 매출총이익률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회사가 생산기반의 다양화 전략에 의하여 추진한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설립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특별 관세 부과와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대외적인 악재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동안에 미국향 매트리스의 생산기반이 중국법인에서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중국 법인은 미국 외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의 개척과 가구 제품 생산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법인의 신설공장이 매트리스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지만 생산성이 정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과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의 매출총이익률은 중국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특별관세 (Section 301 Tariffs)의 악영향(회사 전체 매출액의 4% 수준)을 극복한 결과라는 점이 주지할 만한 사항입니다.



# 영업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실적분석

- ▶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8억원 증가하며, 95.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4.2%p 상승 하였으나, 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로 인하여 2017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특별 관세 부과가 영업이익률의 추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 판매비와관리비는 전년 동기 대비 330억원(26.8%) 증가하였으며, 특히 총업원급여 및 상각비 금액이 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 **총업원급여** : 연결회사 전체적으로 IT, 회계, 마케팅 등의 부문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였고, 신규법인 설립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도 신규 인력충원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였던 수준까지의 조직보강은 2019년에 상당 부분 완료 되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회사의 매출성장에 따른 규모 경제의 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는 매출과 연동되는 성격의 항목으로, 당기 매출 성장률(31.4%) 대비 광고선전비 증가율(23.4%)은 낮은 수준이며, 계획된 예산 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 **통관물류비** : 통관물류비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성격의 항목으로 매출의 증가에 따라 통관물류비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 ✓ **상각비 / 지급임차료** : K-IFRS 도입 효과 분석이라는 항목에서 별도로 분석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 영업외손익



## 실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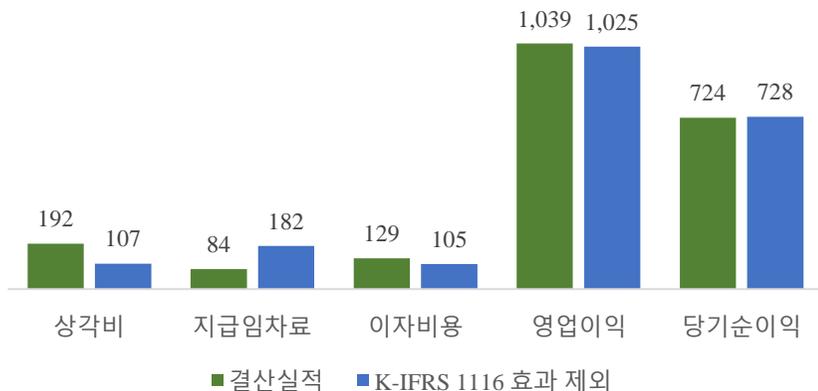
- ▶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8억원 증가하며, 66.1% 상승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영업외손익에서 나타난 부의 효과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9%를 기록하였습니다
- ▶ 영업외손익은 2018년 (+) 51억원이었으나, 당기에는 (-) 114억원으로 당기순이익에 전년 동기 대비 165억원의 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 **외환관련 손익** : 원/달러환율이 전기에는 6월을 기준으로 급등 하였으나 당기에는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한국법인의 외환관련 손익이 전기 (+) 12억원에서 당기 (-) 12억원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위안화/달러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 중국 생산법인의 외환관련 손익도 전기 (+) 40억원에서 당기 (+) 24 억원으로 1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외환 관련 손익의 변화는 회사의 예상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4분기에만 3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 **이자비용** : 인도네시아 법인의 시설/운영차입금과 무역금융 사용, 미국법인의 거래량 증가로 인한 운영차입금 증가, 한국법인의 일시적인 운영차입금 사용(200억원, 당기 중 상환완료) 등으로 인해 전기 대비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기의 이자비용에는 K-IFRS 1116 적용으로 인한 회계상 이자비용 2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실제 이자비용 증가는 46억원입니다.
  - ✓ **잡이익** : 전기에는 미국법인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 보상금액 약 60억원이 잡이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K-IFRS 1116 도입 효과 분석

(단위: 억원)

### K-IFRS 1116 손익 효과



(단위: 억원)

### K-IFRS 1116 자산부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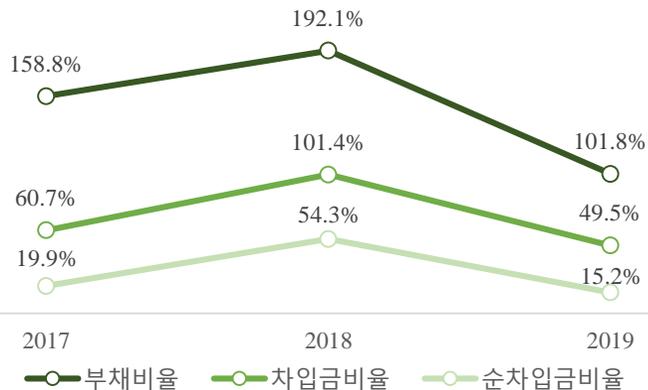
## ✿ K-IFRS 1116 도입 효과분석

- 연결회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이하, K-IFRS 1116)에 따라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서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임차료로 반영하였던 리스를 당기부터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K-IFRS 1116 적용에 따른 효과로 인하여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85억원 증가하였고, 지급임차료는 98억원 감소하였으며, 이자비용은 2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K-IFRS 1116 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당기의 영업이익은 14억원 감소하였을 것이고,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4억원 증가하였을 것 입니다.
- 한편, K-IFRS 1116 유형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으로 인하여 손익 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말의 자산과 부채는 K-IFRS 1116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각각 361억원과 3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재무비율

부채비율 / 차입금비율 / 순차입금비율



유동비율 / 당좌비율



## 주요 재무비율 분석

➤ 회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          |                                 |
|----------|---------------------------------|
| * 부채비율   | 부채 총계 / 자본총계                    |
| * 차입금비율  | (차입금+사채) / 자본총계                 |
| * 순차입금비율 | (차입금+사채-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 자본총계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당좌비율   | (유동자산-재고자산) / 유동부채              |

➤ 부채비율을 비롯한 차입금비율, 순차입금비율 모두 전기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장자금 유입에 따른 자본(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1,209억원과 당기순이익 724억원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편, 2019년의 부채비율에는 K-IFRS 1116 도입으로 인해 회계상 리스부채가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효과를 제외할 경우의 부채비율은 91.9%로 계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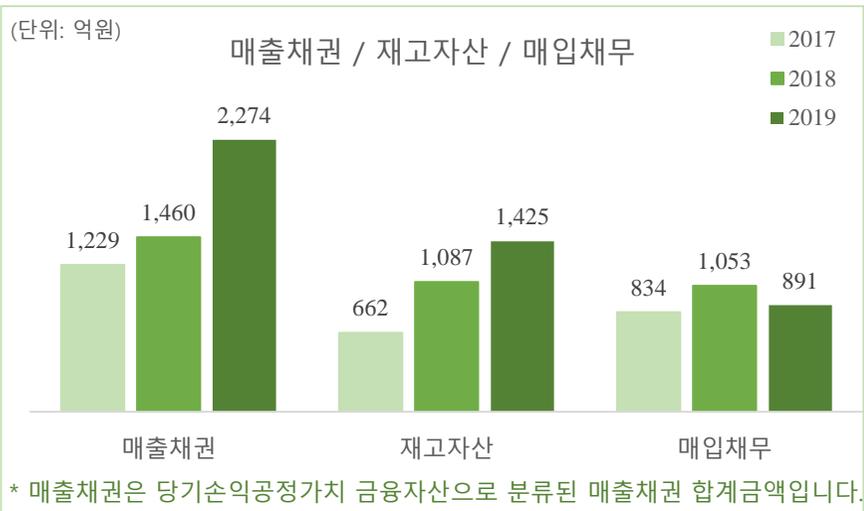
➤ 주요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 ❁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분석

- 매출의 성장과 생산시설 확장 등으로 인해 전기말 대비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은 증가했으며, 매입채무는 전기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채권/재고자산의 증가와 매입채무의 감소는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매출채권 :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잔액의 거의 대부분은 Amazon 및 Walmart, Wayfair 등 초우량기업에 대한 채권으로, 신용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당기말 매출채권의 급증은 매출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회사의 연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말 매출채권의 증가가 가져온 현금흐름 상의 악영향도 현재의 보고시점에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전기말 대비 3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의 성장에 따른 안전재고 수준의 증가와 인도네시아 법인 및 Fujian 법인의 본격 생산에 따른 재공품 및 원재료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재고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재고에서 완성품 재고(제품/상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과 2018년말 83% 수준에서 2019년 7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재공품 및 원재료 비중은 2018년말 14.2%에서 2019년말 18.1%로 증가하였습니다.
- 매입채무 : 생산시설의 확장과 매입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입채무 금액은 오히려 전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강화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급적 조기에 매입채무를 결제하려고 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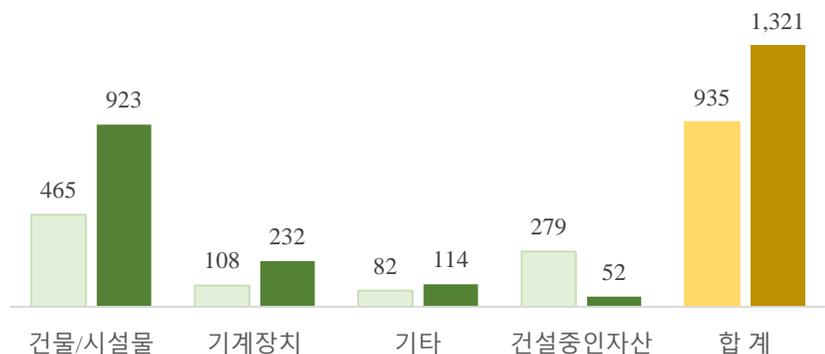


# Capex 투자내역

(단위: 억원)

###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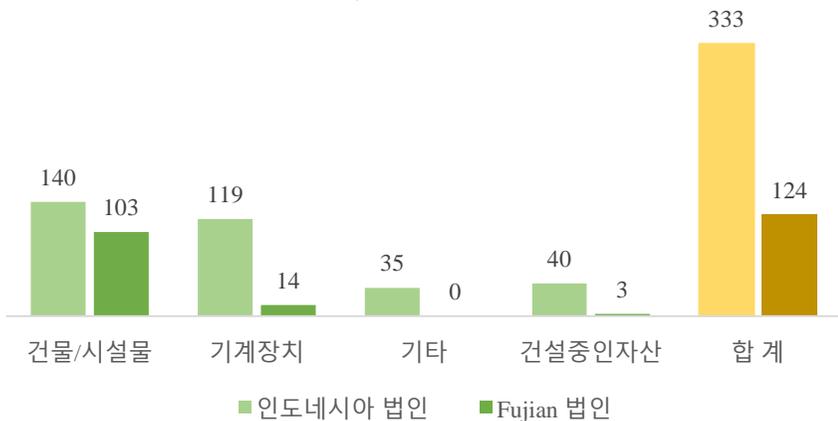
■ 2018 ■ 2019



\* K-IFRS 1116 도입에 따른 사용권자산 효과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위: 억원)

### 인도네시아/Fujian법인 유형자산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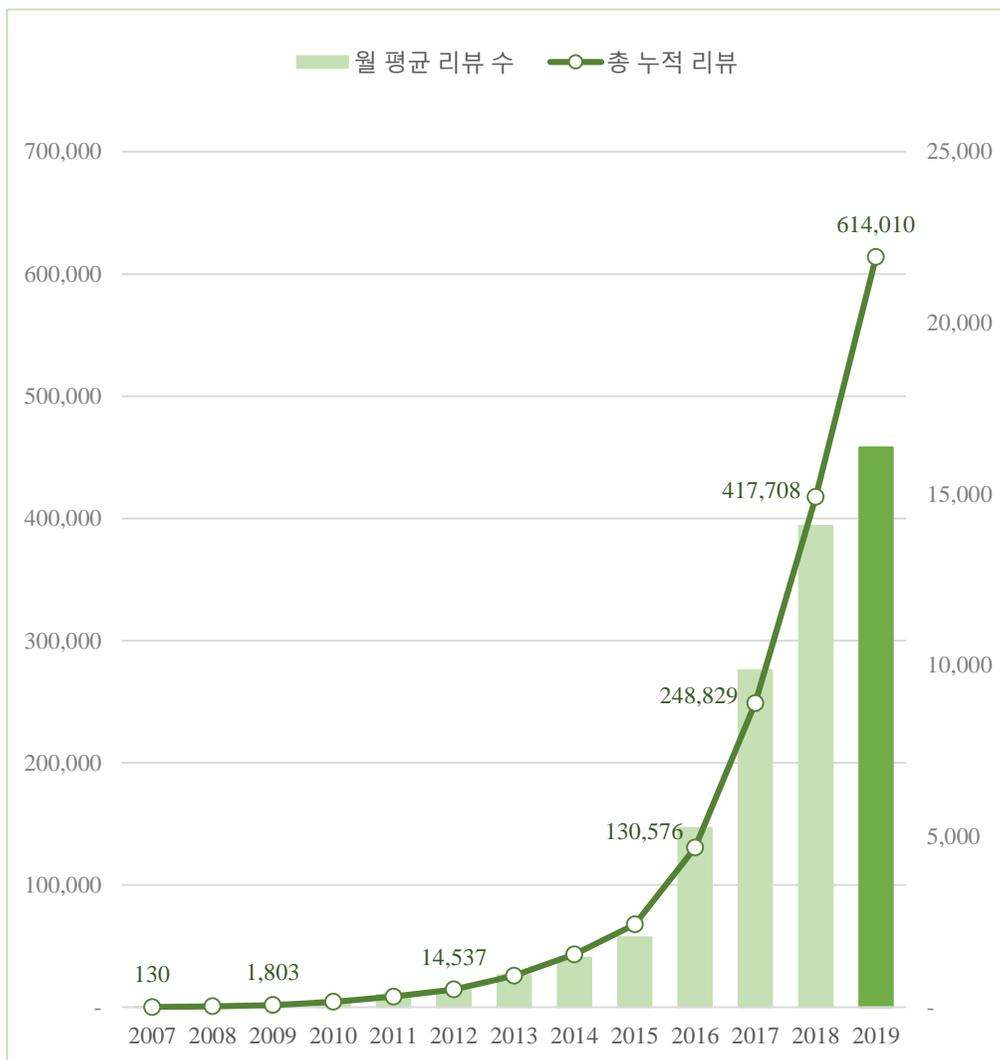


## Capex 투자내역 분석

- 사용권자산을 제외한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금액은 386억원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소 89억원과 외환차이를 고려할 경우 취득/처분으로 인한 증가는 466억원으로 파악됩니다.
- 연결회사 유형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건물/시설물과 기계장치이며, 세부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물/시설물** : 인도네시아 법인 2공장 완공과 Fujian 법인 공장의 완공으로 인한 증가가 대부분이며, 증가금액에는 당기 취득 분 외에 전기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의 본계정으로 대체한 효과 약 24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계장치** : 증가금액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공장의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금액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의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119억원 입니다.
- 인도네시아 법인과 Fujian 법인은 당기 중 각각 333억원, 124억원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으며, 건설중인자산은 향후에 건물과 기계장치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지누스의 고객 리뷰 현황



## 고객 리뷰 현황

- ▶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리뷰가 큰 영향을 끼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월등한 숫자의 사용후기와 높은 평점을 유지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비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2007년 처음 온라인에서 리뷰를 받은 이후로 연평균 98% 이상의 높은 리뷰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말 현재 614,010개의 고객 사용후기를 축적하였습니다.
- ▶ 특히, Green Tea Foam Mattress 와 14 in SmartBase의 누적 리뷰는 각각 31,558개와 26,522개에 달하여 동 카테고리의 2,000개 이상 경쟁 제품들보다 월등한 숫자의 리뷰를 보유한 상황에서 출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아마존에서의 Best Selling 위치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회사의 리뷰 평균 점수는 4.5로 대표 경쟁 브랜드인 T사의 3.9, C사의 3.9 그리고 S사의 4.1과 비교하여 높은 고객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배당성향 및 정책 관련

### ✧ 배당성향 및 정책

- 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상장 할 때 주주여러분께 약속 드렸던 주주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주주친화경영의 일환인 배당과 관련하여 회사는 연결당기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1,250원의 배당금 지급을 당기(41기) 결산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결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여 친주주 정책을 지속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당기 이사회에서 결의한 연결당기순이익 기준 25% 배당은 유가증권 시장은 물론이고, 동종업종의 배당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사는 향후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소요 등을 감안하여 중간배당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ZINUS

이 종목의 더 많은 IR정보 [확인하기](#)

**IR GO**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